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대표 가릴 '3색 무대'

예선대회 겸한 제28회 제주연극제 오는 24일 개막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극단 세이레 첫 무대
29일 가람 이어 31일 예술공간 오이 무대로 막 내리

오는 6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41회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 경연에 출전할 제주 대표를 가릴 예선대회를 겸한 제28회 제주연극제가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제주연극제에는 지역 3개 극단이 참여해 경쟁을 펼친다.

이달 24일 극단 세이레의 '만리향' (김원 작, 강상훈 연출)이 여는 제주연극제는 29일 예술공간 오이의 '산은 밤이면 범고래가 된다' (홍서해 작·연출) 공연에 이어 31일 극단 가람의 '울어라! 바다야'

(이상용 작·연출) 무대로 막을 내린다.

극단 세이레의 '만리향'은 실종된 지 5년이 넘는 막내를 보았다는 어머니의 말에 하던 일을 멈추고 막내를 찾아 나선 가족들의 이 야기를 통해 가족 붕괴의 시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한다.

극단 가람의 '울어라! 바다야'는 4·3과 한국전쟁 직후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 출가녀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가족들을 위해



극단 가람의 '울어라! 바다야' 공연 장면.

극단 가람 제공

이국땅에서 평생 물질을 해 온 애환 서린 해녀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예술공간 오이는 창작극 '산은 밤이면 범고래가 된다'를 초연으로 선보인다. 연극을 통해 사계(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시간) 위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과 존재의 이유를 살펴보며 관객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희망을 찾아가길 권한다.

세 공연은 모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다. 오로지자

두드리고 다듬어 빚어낸 제주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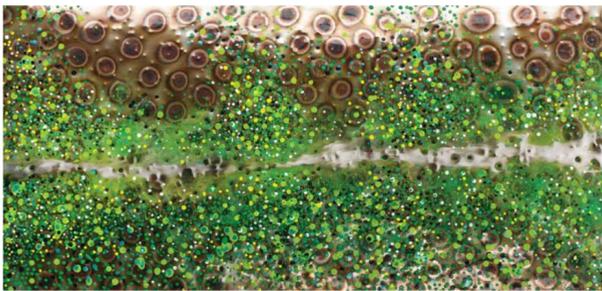
노정석 개인전 '제주의 오름 생명의 태동'
부미갤러리 초대로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한라산과 오름, 꽃자왈과 만장굴 등 자연적 혜택을 품은 제주. 노정석 작가가 "이 같은 환경을 오묘한 신의 계시로 이룩된 신비로 표현하고자 애쓴 작업"을 선보인다. 21일부터 부미갤러리에서 여는 '제주의 오름 생명의 태동'전을 통해서다.

부미갤러리 초대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제주에서 여는 노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이다.

작가가 "제주에 대한 감정을 이미지로 표현했다"는 전시작 20여 점은 기존의 천 캔버스의 틀을 벗어난 조형적인 형식을 보였다. 철의 속성을 지닌 아연 강판과 스테인판 위에 단조,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기존 회화에서 나타난 명암을 더욱 극대화했다.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제주의 전설을 시발점으로 오늘의 영광을 이



노정석 작 '한라-계곡의 신비'.

룬 제주라는 기적의 에너지를 탐구하고 싶었다고 밝힌다. 그리고 "차가운 철을 두드리고 다듬어 가며 제주만의 아름다운 색깔의 온기를

불어넣고자 주력"했음을 전한다.

전시는 4월 3일까지다. 이 기간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오로지자

도민체전에 올려피질 1200명의 합창

제주도, 도립예술단과 함께 할 도민합창단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 도민체전 개막식에 참여할 도민합창단을 모집하고 있다.

제주도는 체육과 예술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도민체전 개막식에 제주도립예술단과 도민합창단이 함께 하는 대규모 도민 합창 오케스트라를 사전공연

으로 기획했다.

합창단 규모는 약 1200명으로 예정하고 있다. 도내에 등록된 합창단이라면 나이, 성별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합창 오케스트라 공연은 4월 21일 한림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다.

합창곡은 베토벤 합창교향곡 4악장 '합창'과 '우정의 노래(Stein Song)', '삼다도 소식' 등 총 3곡이다.

참여하는 도민합창단에게는 참여 인원을 고려한 소정의 출연료가 지급되며, 공연 전날 사전 연습 등을 고려해 공연 장소까지 단체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2일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로지자 ejoh@ihalla.com

서귀포칠십리문학상 공모

서귀포문인협회(회장 정영자)는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서귀포 칠십리문학상 작품을 오는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모집한다.

모집작품은 최근 5년 이내 문예지나 동인지 등에 발표된 서귀포 관련 시와 시조 작품이다.

선정작은 7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오는 9월 열린 서귀포문학제에서 이뤄진다.

황학주의 시·詩·있는 화요일 (11)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인가 김선우

그대가 밀어 올린 꽃줄기 끝에서
그대가 피는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떨리는지

그대가 피어 그대 몸속으로
꽃벌 한 마리 날아든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아득한지
왜 내 몸이 이리도 뜨거운지

그대가 꽃 피는 것이
처음부터 내 일이었다는 듯이.



삽화=써머

그림도 노래의 선율도 수려한 이 짧은 시를 따라가면 시인은 세상의 미처 날뛰는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본다는 신호를 보내온다. 마치 처음 보는 일처럼 꽃 피는 것을 놀라워하는 존재로서 말이다. 어떤 나무가 킁킁하고 허겁지겁 쓰레기 같은 땅 한쪽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꽃 줄기를 거쳐 마침내 비바람 치는 공중으로 환하게 꽃을 밀어 올리는 것까지를 보는 것이다. 거기에 생명이 거둬나가는 장면을 보는 "이다지도 떨리"는 마음은 있는 거고, 아울러 몸이 열리는 과정을 알고 있는 고통의 학습자가 있는 거다. 꽃 피는 일이란 꽃이 항상 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도.

몸 하나는 협소한 것이 아니다.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사랑에 쓸 수 있고, 그리고 기어코 그 사랑의 정념을 뒤집는 데까지 간다. "그대가 꽃 피는 것이/ 처음부터 내 일이었다는 듯이". 몸을 나누고 섞는 방식이라는 뜻이 무명의 존재들이 '꽃의 몸'에서 겹쳐지는 바로 그 지점까지, 그리고 마음은 피는 꽃뿐만 아니라 다른, 피지 못한 꽃과 피어야 할 꽃까지 기억하는 것이다.

이 지지부진한 삶 밖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딛으려 치면 자, 여길 보세요. 이런 시간에도 내가 무엇에 어떤 고통에 뜨거워질 수 있는지!

<시인>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제21대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장

제21대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 경 필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차 성 준
(50회)



양 기 호
(51회)

한림농협조합장 · 한림수협조합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림초등학교 총동창회
회 장 진 정 엽 의 회원 일동